

2025학년도 1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침묵으로도 가능한 소통 -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진짜 목소리

이름	이지원
전공	KIBS
학번	20212699
참여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1-on-1코칭 (담당교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글말특강 (7회차)

나는 늘 소통은 말로 완성된다고 믿어왔다. 어릴 때부터 표현력은 곧 인간관계의 실력이라 배워왔고, 말 잘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은 대학생이 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나는 종종 충분한 생각보다 말이 먼저 튀어나오기도 했고,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말을 더 많이 하려는 습관이 생겼다. 하지만 글말교실 7회차 특강 '침묵으로도 가능한 소통'을 들으며, 그동안 내가 지나쳐온 '침묵'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깊고 지혜로운 소통의 도구인지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다.

"말을 하면, 들을 수 없다." 교수님의 이 문장은 강의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과연 누구의 말에 귀 기울여 왔는가? 대부분의 시간, 나는 내 생각을 전하는 데에 집중했고,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침묵으로 응답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동안 침묵은 단절이나 무기력의 상징처럼 느껴졌지만, 특강은 그 인식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큰 공감의 시작이 될 수 있으며, 경청의 의지를 드러내는 강한 표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은 최승호 시인의 시 「발효」였다. "나는 울부짖음 대신 쓴 거품을 내뿜었다"는 구절에서 나는 멈춰 섰다. 감정을 즉각적으로 터뜨리는 대신, 침묵 속에서 그 감정을 스스로 숙성한다는 시인의 자세가 인상 깊었다. 그동안 나는 감정을 참는 것은 억누름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내면을 정리하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지혜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배웠다.

강의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침묵의 효용을 설명했다. 특히 건설적 침묵은 감정을 다스리고 갈등을 줄이며, 조언보다 효과적인 코칭 방식이라는 점이 흥미로웠다. 말이 많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말은 상대에게서 생각의 여지를 빼앗을 수 있다는 설명에 크게 공감했다. 누구나 한 번쯤 '내 말을 듣기보다 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깊이 위로 받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 역시 그런 순간들이 떠올라 이 내용에 더욱 깊이 몰입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강의 이후 작은 실천을 시작했다. 대화 중 말을 덧붙이고 싶은 충동을 의식적으로 자제했고, 누군가 말을 더듬거나 침묵할 때 그 시간을 편안하게 기다리려 노력했다. 처음엔 불안하고 어색했지만, 그 순간 침묵은 단지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신호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전공 수업 팀 프로젝트에서도 굳이 말로 끌고 가지 않고, 정적을 견디며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자 오히려 회의의 질이 더 좋아졌다. 예전 같으면 침묵은 자신감이 부족한 태도라 여겼겠지만, 지금은 자신을 믿고 여백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지혜임을 체감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단순히 말과 침묵 사이의 균형을 설명한 수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당연하게 여겨온 소통 방식에 의문을 던지고, 그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든 전환점이었다. 타인의 말에 침묵으로 공간을 내어주고, 내 내면에도 여백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수업은 단순한 '강의'가 아닌 '변화의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말보다 듣기를 선택하고 싶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말의 여백에서 타인의 진심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 이번 글말교실이 내게 남긴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배움이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말, 나는 그 진리를 내 삶에 새기고 실천해 갈 것이다.